'가능한 사랑' 이창동 "거대 자본 빌리지만 독립성 추구"

넷플릭스에 공개…"예지에 내 모습 투영, 해고노동자 고통 넘어 노동의 가치 변화 담아"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저의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난 6일 만난 이창동 감독은 신작 '가능한 사랑'에 등장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조여정 분)가 자본에 의지하면서도 나름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감독 자신의 모습이 투영됐다고 말했다.

9월14일 베네치아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을 받고 국내 극장에서 2주간 한시적으로 상영된 '가능한 사랑'은 이날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됐다.

이 작품은 해고 노동자 호석(설경구)과 아내 미옥(전도연)이 다큐멘터리 감독 예지와 그의 부유한 남편 상우(조인성)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예지는 해고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면서 영화의 주요 소재인 호석과 미옥 부부를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이 감독은 예지가 노동자들의 고통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데 대한 윤리적 고민을 하면서도 영화적 성공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라며, 이런 모습에 영화감독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 자본의 힘을 빌려서 영화를 하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독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날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을 만나는 데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한국과 해외에서 극장 개봉을 했지만 제한된 극장에서 상영돼 주로 영화애호가들이 봤을 것"이라며 "일반 관객들에게는 처음 공개하는 셈이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되고 설렌다"고 전했다.

이 감독은 10여년 전에도 해고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을 준비하다 중단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극적인 이야기로 재현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영화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이다.



이 창동 감독 〈넷플릭스 제공〉

그는 "내가 이걸 이야기할 자격이 있나, 이야기한다면 누구 편에 서야 하나, 이 사람들의 편에 얼마나 가까이 설 수 있나 생각하게 됐다"며 예지의 심정에 빗대 당시의 고민을 떠올렸다.

'가능한 사랑'은 이런 윤리적 고민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특히 노동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약해지고, 이윤이 노동자의 권리보다 우선시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 감독은 "노동의 가치나 의미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수익성이 노동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왔다"며 "AI 등장과 함께 (이런 경향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집단해고로 공식화됐다는 것이 해고 노동자들이 가장 상처받고 절망했던 이유라며 "적어도 근대 이후에 지켜오던 노동에 대한 가치는 이제 무시되고, 그게 구조화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랫동안 취재하며 인연을 맺은 해고 노동자들의 반응도 전했다. 이 감독은 "그분들이 영화를 보고 치유받는 것 같았다고 한 말을 전해 들었다"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능한 사랑'은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출품작으로 선정돼 오스카 도전도 앞뒀다.

이 감독은 "한국 대표가 됐으니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스태프와 배우들이 모든 힘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인 만큼 최대한 보상을 돌려줘야 할 책임도 있다. 체력이 많이 달리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10월 2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 큰 굴곡 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저녁 무렵 작은 변수가 하나 생긴다. 허둥대지 말고 원래 정한 순서대로 처리하라.
60년생 : 오래 알던 사람이 건넨 조언이 지금 형편에 잘 들어맞는다. 듣고 끝내지 말고 이번 주 안에 할 일 하나로 옮겨라. 72년생 : 맡은 일의 평가가 기대만큼은 아니어도 무난하게 나온다. 아쉬웠던 점을 물어 다음 일에 반영하면 평가가 한 단계 오른다. 84년생 :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지만 예상 못 한 지출이 끼어든다. 급하지 않은 결제는 다음 달로 넘겨 흐름을 맞춰라. 96년생 : 떠오른 생각을 말로 풀어내는 솜씨가 좋아 주변이 귀를 기울인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은 정해진 것처럼 말하지 마라. 행운의 수: 1,6 행운의 색 : 갈색

소띠 : 손을 잡는 사람마다 내 편이 돼 일이 성사로 이어진다. 혼자 결정하기보다 함께할 사람과 뜻부터 맞춰라.
61년생 : 믿을 만한 사람이 함께하자며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온다. 좋다고 덥석 답하기보다 역할과 비용을 나누는 방법부터 정하라. 73년생 : 여러 사람이 내 편에 서 줘 맡은 일의 평가가 좋게 나온다. 힘을 보탠 사람들의 몫도 윗사람 앞에서 분명히 밝혀라. 85년생 : 함께 추진한 일에서 성과가 나와 보상이 따라온다. 보상은 기여한 만큼 나누고 생색내는 말은 줄여라. 97년생 :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늘어 의견이 쉽게 모인다. 모인 의견은 누가 언제까지 할지까지 정해 끝내라.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 분홍색

호랑이띠 : 특별히 막히는 일은 없지만 속도가 평소보다 조금 더디다. 서두르기보다 오늘 할 몫만 정확히 끝내라.
62년생 : 계획은 잘 세워 뒀는데 실행을 자꾸 미루게 된다. 가장 쉬운 일부터 오늘 오전에 시작해 흐름을 만들어라. 74년생 : 윗사람이 맡긴 일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다. 혼자 끌어안지 말고 중간에 진행 상황을 한 번 알려라. 86년생 : 작은 수입이 들어오지만 곧바로 나갈 곳이 생긴다. 들어온 날 바로 쓰지 말고 이틀쯤 두고 쓰임을 정하라. 98년생 :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어색한 자리가 부드러워진다. 농담이 길어지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으니 적당한 데서 멈춰라. 행운의 수: 2,7 행운의 색 : 남색

토끼띠 : 고쳤다고 여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어 일이 꼬이기 쉽다. 익숙한 일일수록 순서를 하나씩 짚어 가며 처리하라.
63년생 : 예전에 들었던 조언을 잊고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려 한다. 결정하기 전에 그때 왜 일이 틀어졌는지 떠올려 보라. 75년생 : 보고서의 같은 자리에서 또 실수가 나와 윗사람이 고개를 젓는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검토를 부탁하라. 87년생 : 예전에 손해를 봤던 거래 상대가 비슷한 제안을 들고 온다. 이번에는 조건을 글로 받아 지난번과 하나씩 견줘 보고 답하라. 99년생 : 무심코 꺼낸 말이 예전처럼 오해를 불러 분위기가 식는다. 말이 엇나갔다고 느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풀어 말하라. 행운의 수: 4,9 행운의색: 하늘색

용띠 : 흩어져 있던 일이 한데 맞물려 돌아가고 주변이 앞다투어 돕는다. 들어오는 제안은 미루지 말고 오늘 안에 답하라.
64년생 : 오래 그려 온 계획에 힘을 보태겠다는 사람이 나타난다.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맡을 일과 맡길 일을 분명히 나눠라. 76년생 : 맡은 일이 순조롭게 끝나 윗사람이 다음 일을 맡기려 한다. 다음 일은 함께할 사람을 내가 고를 수 있는지 물어보고 받아라. 88년생 : 기다리던 계약이나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와 숨통이 트인다. 늘어난 돈의 쓰임은 가족과 의논해 정하라. 00년생 : 내가 낸 제안이 받아들여져 일이 빠르게 진행된다. 채택된 뒤에도 세부 내용은 팀원들 의견을 받아 다듬어라.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 금색

뱀띠 : 오전에는 잔잔하다가 오후에 해야 할 일이 몰려든다.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을 나눠 차례대로 처리하라.
65년생 : 가까운 사람이 건넨 계획에 마음이 기울지만 아직 확신은 없다. 하루 더 생각해 보고 모르는 부분은 직접 물어보라. 77년생 : 윗사람이 일의 마감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다. 무리해서 약속하기보다 가능한 날짜를 솔직하게 말하라. 89년생 : 맡은 일에서 작은 성과가 나와 윗사람 눈에 든다. 이번 성과를 다음 일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짧게 보고하라. 01년생 : 회의나 모임에서 내 말이 조금 길어진다. 하고 싶은 말은 세 가지로 줄여 짧게 전하라. 행운의 수: 1,2 행운의 색 : 청록색

말띠 : 계획이 갑자기 바뀌거나 자리를 옮길 일이 생겨 마음이 급해진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고 순서를 다시 정하라.
66년생 : 급히 정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엇갈린다.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가장 손해가 적은 쪽을 골라라. 78년생 : 윗사람과 의견이 부딪혀 분위기가 날카로워진다. 맞서서 따지기보다 지시받은 내용을 다시 정리해 확인받아라. 90년생 : 서둘러 정한 일정이 다른 일과 겹쳐 하루가 빠듯해진다. 겹친 일 가운데 하나는 상대에게 연락해 날짜를 옮겨라. 02년생 : 서둘러 보낸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 상대가 언짢아한다. 글로 길게 해명하기보다 전화로 직접 사정을 말하라. 행운의 수: 3,9 행운의색: 회색

양띠 : 가볍게 넘길 말에도 마음이 쓰여 서운함이 쌓이기 쉽다. 상대의 뜻을 짐작으로 정하지 말고 직접 물어 확인하라.
67년생 : 믿고 따르던 사람의 말이 오늘따라 차갑게 들린다. 말투보다 그 말에 담긴 내용만 받아들여라. 79년생 : 겉으로는 협조하던 동료가 일을 슬며시 미뤄 둔다. 맡긴 일은 언제까지 되는지 날짜를 정해 다시 부탁하라. 91년생 : 돈 문제로 가까운 사이에 섭섭함이 생긴다. 감정과 셈은 따로 떼어 차분히 이야기하라. 03년생 : 장난으로 한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변명보다 사과부터 하라. 행운의 수: 4,6 행운의 색 : 연보라색

원숭이띠 : 하던 일에 여러 사람의 손이 보태져 단번에 풀려 나간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때 손대지 못한 일까지 함께 처리하라.
68년생 :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반가운 소식과 함께 좋은 방법을 일러 준다. 들은 방법은 그대로 해 보고 결과를 그 사람에게 알려라. 80년생 : 어려운 일을 맡았지만 주변이 거들어 기대 이상으로 끝난다. 효과를 본 방식은 함께한 사람들과 정리해 다음 일에 써라. 92년생 : 들인 노력에 비해 큰 보상이 돌아온다. 늘어난 수입의 일부는 이번에 힘을 보탠 사람과 나눌 몫으로 떼어 두라. 04년생 : 처음 맡은 일인데도 손이 빨라 동료들이 놀란다. 빨리 끝낸 만큼 마지막 점검에 시간을 더 써라.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 황토색

닭띠 : 다 정해졌다고 여긴 일이 마지막에 한 가지 걸린다. 결과를 알리기 전에 빠진 조건이 없는지 살펴라.
69년생 : 마무리 직전에 누군가 계획에 한 가지를 더하자고 한다.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 때문에 늦어질 날짜부터 따져라. 81년생 : 끝낸 줄 알았던 일에 윗사람이 손볼 곳을 하나 더 짚는다. 불평 없이 고쳐 깔끔하게 넘겨라. 93년생 : 마무리 단계에서 동료가 일정을 하루 늦추자고 한다. 늦춰진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 손을 대라. 05년생 : 말을 잘 이어 가다가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좋은 분위기일 때 말을 줄이고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라.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 소라색

개띠 : 눈에 띄는 일은 없어도 해 온 일이 조용히 쌓여 간다. 다른 사람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하던 대로 이어 가라.
70년생 : 아는 사람이 일손을 도와 달라고 부탁해 온다. 내 일정이 허락하는 만큼만 돕겠다고 분명히 말하라. 82년생 : 맡은 일이 많지는 않지만 꼼꼼함을 요구받는다. 숫자나 이름처럼 틀리기 쉬운 부분을 먼저 살펴라. 94년생 : 오래 해 온 일의 손놀림이 빛나 동료들이 요령을 묻는다. 물어 오는 사람에게 내 방식을 알려 주면 나를 돕는 사람이 는다. 06년생 : 친구들 사이에서 내 농담이 잘 통한다. 웃음이 커질수록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행운의 수: 6,8 행운의 색 : 팥색

돼지띠 : 오래 알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내 일을 거들어 준다. 혼자 하던 일을 나눌 기회로 삼아 역할을 정하라.
71년생 : 주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의 조언을 해 줘 결정이 쉬워진다. 결정한 내용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라. 83년생 : 동료들이 내 쪽에 서 줘 어려운 업무가 한결 가벼워진다. 받은 도움은 다음 바쁜 때에 꼭 갚겠다고 말로 표현하라. 95년생 : 여럿이 함께한 일에서 정산이 깔끔하게 끝난다. 정산이 끝나면 다음 모임 비용도 미리 정해 둬라. 07년생 : 내 생각을 지지해 주는 친구들이 늘어 자신감이 붙는다. 지지해 준 친구들과 함께 첫 단계를 정해 이번 주에 시작하라. 행운의 수: 7,9 행운의색: 백금색

광주매일TV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 창조클럽 아카데미 12강 구지훈 교수 '천재의 몸은 건강했을까'
- 공사 중단 위기 딛고 준공…'봉선 시그니처 휴튼' 새출발
- 2026 학교폭력 예방 소통 라이브 '아이들의 뇌 발달…'
- 2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광·홍보아카데미 개강

[Short]
- "나라의 주인은 주권자 시민입니다" 민형배의 다짐
- "5·18에 '탱크데이' 논란…광주 시민들 반발"

[현장스케치]
- 전남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공개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010

TV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KBS1	KBS2	MBC	KBC·SBS	EBS1
6	6:00KBS뉴스광장 7:35KBS뉴스광장(광주) 7:50인간극장	6:05TV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 7:30생생정보스페셜	6:00MBC뉴스투데이 1부 6:25MBC뉴스투데이 2부 7:20광주MBC뉴스투데이 7:50생방송 오늘아침	6:00모닝와이드(1부) 6:25모닝와이드(2부) 7:20KBC모닝와이드 7:40모닝와이드(3부)	06:10세계테마기행 07:00나의비밀친구해치 07:15모두함께부스누! 07:30냠냠히어로 슈퍼잭 07:45다이노스터공룡수호대 08:00딩동댕딩동댕 08:20지구영웅번개맨 08:35지구영웅번개맨 08:50강철소방대파이어로보Z 09:20자이언트펭TV
8	8:25아침마당 9:30KBS뉴스930 9:45KBS뉴스(광주)	8:4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9:20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8:50가족관계증명서 9:30930MBC뉴스 9:45기분 좋은 날	8:40닥터 365 8:50좋은아침 9:55SBS 10뉴스	09:40서장훈의이웃집백만장자 10:35최고의요리비결 11:05세계테마기행 12:00EBS뉴스 12 12:10최후의인류
10	10:00무엇이든물어보세요 11:10동행	10:00인간극장 스페셜 10:40KBS아침뉴스타임 11:10생활의발견스페셜 11:20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0:45MBC나눔 프로젝트 희망의 발걸음 11:45꼬마카레이 탐구생활 2	10:30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탑클래스	13:05한국기행 13:25딩이랑뽀이랑인물한국사 13:35위대한수업_그레이트마인즈 13:55EBS평생학교 14:10EBS평생학교 스페셜 14:55나의두번째교과서
12	12:00KBS뉴스 12 1:00KBS네트워크 특선 우리동네 1:50생활의발견스페셜	12:50한국인의밥상 1: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2:00 12MBC뉴스 12:25오늘N 1:25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1:552시뉴스 외전	12:00SBS 12뉴스 12:25민방네트워크뉴스 12:45아기상어 2 1:00네모세모	15:35꼬마마법사주니토니 15:50마샤와곰 16:05블록스 16:20딩동댕딩동댕 16:40지구영웅번개맨 16:55지구영웅번개맨
2	2:00KBS뉴스 2:10전국을달린다 2:20 지역소멸 극복 프로젝트 〈우리동네〉 3:10해드림컴퍼니	3:00KBS뉴스타임 3:15월드24 3:45강지 아일랜드	3:55기분 좋은 날	2:00뉴스브리핑 3:30고향이 보인다	17:10패파피그 17:20다이노스터공룡수호대 17:50보통의기록회고 18:10EBS뉴스
4	4:00사사건건 5:00KBS뉴스 5 5:30전국을달린다 5:40이맘때	4:00TV유치원 4:30어린이 동물티비 5:00말자쇼 〈2안포함〉	4:555시뉴스와 경제 5:10트로트 클라쓰 3	4:00세 개의 시선 5:00SBS오뉴스 5:10건강한가요	18:30딩이랑뽀이랑인물한국사 18:40딩이랑뽀이랑인물한국사 18:50글로벌특선다큐스페셜 19:45극한직업
6	6:006시내고향 7:00뉴스7광주전남 7:40전광판	6:352TV생생정보 〈2안포함〉 7:50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 〈2안포함〉	6:05빛나는 나의 도시 7:05가족관계증명서 7:40MBC뉴스데스크	6:10생방송 투데이 7:00KBC뉴스와이드 7:45닥터 365 7:50SBS8뉴스	20:40세계테마기행 21:35한국기행 21:55건축탐구-집 22:50특집다큐-청춘,경로의재구성 23:45위대한수업_그레이트마인즈
8	8:30 일일드라마 엄마가 미쳤어요 9:00KBS뉴스 9 9:35KBS뉴스9(광주) 9:50KBS뉴스 9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2안포함〉 9:50스모킹 건 〈2안포함〉	9:00라이어	8:30KBC8뉴스 9:00틈만 나면	00:05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00:20클래스e 00:40지식채널e 00:45지식채널e
10	10:00시사기획 창 10:50KBS뉴스라인W 11:30대하드라마 문무 스페셜 2부 0:05네트워크공동기획 문화스케치 0:55생활의발견 1:4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	10:50아이 러브 스포츠 11:15스튜디오K 0:2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55KBS재난방송센터 1:05방송시간이 아닙니다(5시부터방송예정)	10:20PD수첩 11:20100분토론 0:45MBC뉴스25 1:05실화탐사대 스페셜 2:05방송시간이 아닙니다(5시부터방송예정)	10:40동상이 몽2너는 내 운명 0:20원더풀 고을스페셜 1:20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스페셜 1:50방송시간이 아닙니다(5시부터방송예정)	00:50방송시간이 아닙니다(5시부터방송예정) 03:00 방송시간이 아닙니다(5시부터방송예정) 05:00왕초보영어 05:30기획강연청년에게 05:50한국기행
12	2:40무엇이든물어보세요 3:40국가유산순례 드오 3:45아침마당 5:00생활의발견스페셜 5:10내고향스페셜	5:00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5:00오늘N	5:00투데이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tbn 전남광주교통방송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제보전화 080-333-8000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전남광주대행진 (07:00~08:52)
프로듀서 : 정회준 | 진행자 : 노희설 | 작가 :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신속정확한 교통정보와 재난안전, 다양한 취재와 정보로
청취자의 출근길을 안전하고 기분좋게 만듭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 이진아 | 진행자 : 정인택, 박슬기 | 작가 : 한효정
나른한 오후의 슬기로운 선택!! 박슬기, 정인택과 함께
유쾌한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세요.
흥겨운 트로트 가요와 신나는 코너로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립니다.

특별하다면 시사팬 문애란입니다 (16:05~17:55)
프로듀서 : 양종열, 박다은 | 진행자 : 문애란 | 작가 : 이향미
우리 지역의 오늘을 읽고 내일을 바꿉니다.
오후4시! 특별하다면 시사팬(특별시4)은 청취자와 지역을 잇는 소통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8:05~19:55)
프로듀서 : 김지우 | 진행자 : 최용규, 서예원 | 작가 : 윤서희
복잡한 퇴근길, 달리는 라디오와 함께라면 마음만은 집으로 달려간다!
퇴근길 교통정보와 우리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유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달리는 라디오는 역시 달.라!

KCTV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난 다양한 주요 소식들,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J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케이블TV특선 〈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
전국 케이블TV 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국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계획, 비전을 듣는 시간.
민주당 이연희, 이광재, 김현,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편이 방송된다.
방송 : 11월 9일(월)~12일(목) 13:00~13:30

네트워크 전국발굴 〈 용봉 도란도란 축제 현장 〉
케이블TV 방송국 5개사가 공동제작하는 각 지역의 맛과 멋을 담은 매거진TV.
용봉 패션의 거리 상인들이 중심이 되 마련된 용봉동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신나는 '용봉 도란도란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본다.
방송 : 11월 10일(화)~13일(금) 11:10~11:45

길위에서 〈 의재를 따라 걷는 길 〉
의재 허백련 선생의 삶과 흔적, 역사가 가득한 무등산 초입의 의재 허백련 길을
따라 걸으며 그의 업적과 삶에 대해 되돌아 본다.
방송 : 11월 11일(수)~13일(금) 18:00~18:30